

3년 누적손실 2조 육박... 한국GM의 '예고된 철수'

'조선소 이어 후까지' 군산 지역경제 붕괴 위기감

군산지역 직접 고용만 10%달해 협력업체까지 절반이상과 연관돼 고용불안 파장 상상 초월할 듯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왔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최악의 재무상황에 직면해 있다.

1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부실은 결국 경쟁력 부재 때문이었다. 여기에 해외시장 철수가 직격탄을 날렸다. 수출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고정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경쟁력 상실에 예고된 붕괴

한국지엠의 부실이 시작된 것은 2014년 GM이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2013년 63만대였던 수출물량이 2014년 48만대로 약 25% 가량 감소했다. 2013년 1010억원 흑자던 한국지엠은 2014년 3594억원의 당기손실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수출물량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2015년에는 러시아 철수비용 반영과



카허 카젠 한국지엠 사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오찬 간담회에서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손실 폭이 9868억원으로 커졌고, 2016년에는 부분과업에 따른 손실과 인건비 추가지급 등으로 6315억원의 적자를 입었다.

2014~2016년 3년간 누적 당기손실은 1조9717억원에 이른다. 업계는 지난해에도 한국지엠이 큰 폭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1분기에만 2590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지난해 총 손실액이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한국지엠이 국내 완성차 시장에

서 생존을 위한 경쟁력 약화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지엠이 국내서 역량 자체가 13~15%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지만 판매할 만한 파급력있는 차량이 없다는 게 문제다"며 "국내서 물량이 부족해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쉐보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등 부품 대부분이 국산인데 군산 공장을 활용해 생산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것처럼 지엠은 미국정부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경제는 패니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 공장마저 폐쇄에 들어가자 군산시는 패니 상태에 빠졌다. 그간 군산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이 차지한 경제 규모가 60~70%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연간 완성차 26만 대 생산 규모로 부품 조립(KD)방식까지 감안할 경우 연간 60만 대를 생산하는 시설 규모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 2000여 명이지만 1·2차 135개 협력업체 직원만 1만700명 수준이다. 군산 산업단지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1만94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접 고용만 10%,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한국지엠 공장과 연관돼 있다.

앞서 지난 2010년 3월 문을 연 군산조선소는 한때 조선업 호황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조선과 해운시장

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지난해 7월 문을 닫았다. 50개가 넘는 협력업체가 폐업했고 사내의 생산직 근로자 5000여명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었다. 노동자들이 떠나면서 군산지역 상권은 피폐해졌고 부동산 경기도 한파를 맞았다.

군산조선소는 전북 전체 제조업의 12.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컸고 생산 유발효과도 2조2000억원이나 됐다. 군산시로 좁혀보면 군산조선소를 비롯한 조선분야 노동자 수가 군산 전체 노동자의 24%에 달할 정도였다.

결국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이미 심각한 고용불안에 빠진 상태에서 이번 사태가 가져올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군산공장 1·2차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머지않아 가시화하면 군산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공장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1만여명이 넘는 직원이 지역을 떠난다면 군산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물론 원룸, 식당, 편의점, 유흥주점 등 지역 상권 역시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부 "일방적 폐쇄에 유감... 경영정상화 위한 실사 진행할 것"

군산시, 불매 운동 등 강력 대처키로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전북 군산시는 불매 운동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실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지엠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재무 실사를 받기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GM 측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생산 중단 및 폐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한국지엠 관련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해

왔다"며 "경영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GM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GM 측과도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GM 측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한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

와 성실히 협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지엠의 대규모 적자 원인에 대해 GM 본사가 한국지엠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한국지엠이 GM 관계사에 지급한 이자는 4620억원으로 평균 이자율은 5.3%에 이른다. 이 때문에 초저금리가 지속한 상황에서 한국지엠이 의도적으로 GM 본

사에 비싼 이자수익을 챙겨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지엠의 매출원가율(판매액 대비 제조원가비율)이 2015년 97%, 2016년 94%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매출원가율 80%~85%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GM 본사가 부품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한국지엠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확산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77호(2017.10.17)

Cigna 라이나생명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24시간 무료상담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가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